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9일 수요일 음 1월 26일 (3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3~4℃, 낮 최고 기온은 10~12℃의 분포를 보 이겠다. 오전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매 우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4 rows of weather data.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and 2 rows of sunrise/sunset times.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and 2 rows of weather forecast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and 2 rows of safety information.

월드뉴스

반크, '인종차별' 비판 포스터 제작

슈피겔지 인종차별 보도 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코로나바 이러스-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목 으로 인종차별을 조장한 독일 슈피겔 지의 보도를 비롯해 유럽에서 확산되 고 있는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행위를 비판하는 패러디 디지털 포스터 3종 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반아시아 인으로 확산하며 아시아인 모두를 차 별·혐오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독일 경찰은 '외국인 혐오' 에 의한 모욕과 구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2명의 여성이 중국 여성 (23)을 폭행했다고 밝혔고, 학생들 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등급 급지 나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는 등의 사 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크는 이 3종의 포스터를 우선 슈 피겔지에 전달하는 동시에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활 용해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반크가 제작한 아시아인 차별 비판 포스터. 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가 바 이러스 보균자로 낙인찍혀 기피의 대 상이 되고 있다"며 "그 시발점이 슈피 겔 등 언론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크는 이 신문이 뽑았던 제목을 패러디해 '슈피겔-메이드 인 레이시즘(인종차별)'이라는 포스터 를 제작했다. 또 21명의 아시아인을 등장시킨 후 '아시아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크는 이 3종의 포스터를 우선 슈 피겔지에 전달하는 동시에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활 용해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건강&생활



김재민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원장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은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의외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당수 를 차지한다. 특히 윗눈꺼풀이 처지고 눈뜨기가 힘들어져서 상담을 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를 노인성 안검하수라 고 한다. 안검하수란 눈꺼풀(안검)이 처진(하수) 상태를 말한다. 안검하수 중에도 특히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하는 데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피부의 처짐에 의한 안검하 수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 지면서 늘어지게 되고, 늘어진 피 부들이 눈을 뜨는 것을 힘들게 하고

노인성 안검하수란?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 심한 경우 처진 눈꺼풀이 아래의 피부와 붙어서 짓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주는 것 만으로 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피부만 처지는 경우 보다는 눈꺼풀 안의 지방을 감싸고 있는 안와격막이 늘어지면서 지방이 함께 처지는 경우도 있어 이 를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눈뜨는 힘이 약해져 발생하는 안검하수다. 윗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을 눈꺼풀올림근이라 하는데 이 근육은 눈꺼풀 안의 연골인 눈꺼풀판 에 붙어있다. 즉 눈꺼풀올림근이 안검 판을 들어올려서 눈을 뜨게 되는 구조 다. 하지만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눈꺼풀판과의 연결이 약해지는 경 우 눈뜨기가 힘들게 돼 안검하수가 발생 한다. 이런 경우 눈꺼풀올림근 대신 이마근을 써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생겨 인상이 나빠지고, 심해지면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윗눈꺼풀 처짐을 호소해 내원하는 노년 환자들 중 상당수는 피부를 잘라달라고 먼저 이야기 한다. 하지만 노인성 안검하수의 대부분은 위의 두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생긴 경우 가 많아 단순히 피부를 잘라주는 수 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 눈꺼풀올림 근의 기능에 대한 평가와 이를 교정 하는 수술도 함께 진행돼야 하고 안 와지방에 대한 제거 또는 재배치 여 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자 에 따라 이 원인들이 눈꺼풀처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고 환자자 불변해 하는 부분들 역시 다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에 쌍꺼풀수술을 한차례 이상 시행한 환자들은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눈꺼풀처짐을 이미 경험하고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로 한차례 교정했던 환자들 경우 다 시 눈꺼풀이 처져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한차례 피부가 절제 된

경우 피부를 다시 절제하면 피부의 양이 모자라서 눈을 못 감게 되는 경 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눈꺼 풀올림근의 교정이 주가 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이전 수술로 인한 흉 터나 유착, 쌍꺼풀 높이 변화 등 고 려해야 할 점이 더 많다. 노인성 안검하수 수술을 원하는 상당수의 환자들은 눈을 편하게 뜨 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성형외 과를 찾는 남성환자들의 상당수가 노년에 눈뜨기가 힘들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다. 노인성 안검 하수는 미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기 능적인 목적을 무시할 수 없는 수술 이다.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인성 안검 하수를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 상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처 료를 통해 교정한다면 삶의 질을 더 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박제가의 우물론에 대한 단상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올해 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정 책의 최대 화두는 바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였다. 이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도일시장에서 시무식을 열어 소상공인·경제단체와 함께 민생 경제 활력화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세로 들 어설 무렵,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 가 터졌다.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 침체 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음식 점과 숙박업소, 시장, 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직격탄 을 맞았다. 외출 자체를 꺼리는 현상 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역시

초비상 상태.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경제 이론인 '우물론'이 떠오른다. 그는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물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퍼내야만 맑은 물이 솟아나고, 퍼내지 않으면 말라 버리거나 썩어버린다"고 했다. 여기서 우물은 소비를 의미하는데, 박제 가는 우물론을 통해 왜곡된 검소를 극복하고 소비의 원리를 정확히 운 영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 음을 말하고 있다. 불경기에는 소비 를 늘려줘야 돈이 돌고 돈이 잘 돌아 야 경제가 원활해질 수가 있다.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행정에서부 터 내 고장 상품 구매하기, 재래시장 (전통시장) 찾아가기, 제주사랑상품 권 이용하기, 골목식당에서 식사하 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착한 소 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야 할 것이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 벽은 가까이 온다고 했듯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도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해외 무역장벽 해외규격인증 획득으로 넘자



양용순 제주수출지원센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해외기술규제 증가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 이런 비관적장벽(기술장벽) 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해외규격인 증 획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제주수출지원센터에서는 수출 상 대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매 출액 30억원 기준으로 50~70% 차등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FDA, NMPA 등 총 424개의 인증 중에서 4개를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 능하며,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 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5건 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2월 2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5월과 8월에 추가 로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19년도 사업에서는 16개 회사가 1억9400만원의 지원을 받아 38건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진행 중으로 미국, 중국, 유럽,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설 명회와 해외인증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사업 및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기 업들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하며, 그밖에도 수출지원사업 및 해 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교육을 활 용해 만족할 수 있는 수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제주에서도 1000 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선도기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by Jeju Remodeling,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s like kitchen renovation.

Advertisement for Donggu Dental Clinic,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ra Telesys, a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highlighting their IT solutions and services.